



한국 재계와 스포츠계의 큰 별이 졌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1 고인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았다. 재임 시기 한국 레슬링은 올림픽(7개), 아시안게임(29개) 메달을 쓸어 담았다. 1982년 레슬링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 2 1996년 제10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당선된 고인이 이듬해 올림픽 파트너 조인식에 참석한 모습. 3 20년 넘게 IOC 위원으로 활약한 고인은 1년 반 동안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스포츠 코리아 이끈 ‘큰 별’ 졌다”

1996년 IOC위원 당선...20여년 활동
IOC·EPL 등 공식 스폰서로도 애정
육상·레슬링 등 비인기 종목도 관심

78세를 일기로 25일 별세한 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스포츠에도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에 취임하고, 1987년 고 이병철 창업주 별세 후 그룹의 2대 회장에 오른 고인은 ‘스포츠 코리아’가 세계적 강호로 떠오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삼성스포츠단은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인기 프로종목뿐 아니라 육상, 레슬링,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럭비 등 여러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았다.

어린 시절 프로 레슬러 역도산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이 회장은 서울사대부고 시절 인연을 맺은 레슬링을 각별히 챙겼다.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아 레슬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회장의 재임 시기 한국 레슬링은 올림픽(7개), 아시안게임(29개)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수확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안한봉, 박장순 삼성 레슬링단 감독은 “한국체육의 큰 별이 지셨다. 우리 레슬링은 회장님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1996년 제10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당선된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2017년 8월 물러날 때까지 20년 넘게 한

국스포츠외교를 직접 이끌었다. 하이라이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전이었다. 1년 반, 170여일에 걸쳐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며 동료 IOC 위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평창은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3번째 유치 도전 만에 개최지로 확정됐다. 현장에서 “평창”이 울려 퍼진 순간, 이 회장은 유치위원단 일행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도 이 회장은 큰 역할을 했다. 박태환이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실격되는 해프닝을 겪었을 때 기만하게 대처해 오심 결정을 이끌어내 은메달 획득에 힘을 실었다. 신정희 아시아하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제인으로서 우리 스포츠계에 크게

기여해주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병상에 있던 2017년 9월 IOC 명예위원으로 추대된 이 회장의 야구사랑도 대단했다. 1982년 프로 원년부터 2001년 까지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를 지낸 고인은 적극적 투자로 명문 구단의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경북 경산에 2군 선수단을 위한 볼파크를 세우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11년 삼성이 5년 만에 다시 우승한 뒤에는 류중일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한편 삼성은 로컬 스폰서로 참여한 1988년 서울대회를 기점으로 올림픽 마케팅 시장의 전면에 나섰고, 1997년부터 IOC 파트너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공식 스폰서로도 활동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승엽 “멀리서만 뵈 회장님, 감사했던 기억 많아”

2014년 이승엽 홈런 소식에 눈 뜨기도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장기간 병마와 싸웠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 회장은 스포츠계에서도 그노고를 뽐낼 수 없는 인사다.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회장의 야구사랑 또한 각별했다. 1982년 삼성 라이온즈 창단에 앞장섰을 뿐



‘라이온킹’ 이승엽이 25일 별세한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애도를 표했다. 병상의 이 회장이 이승엽의 홈런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떴다는 일화는 야구계는 물론 재계에도 유명한 일화다. 2014년 5월 25일 대구 넥센전 3회말 3점홈런 때였다. 스포츠동아DB

아니라 초대 구단주를 맡아 구단 운영에 큰 힘을 실어줬다. 1993년 신 경영을 선언한 뒤에는 야구, 럭비, 골프를 ‘삼성의 3대 스포츠’로 지정하기도 했다. 2014년 이 회장이 병상에서 의식이 없을 때 ‘국민타자’ 이승엽(44·은퇴)의 홈런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 뚫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삼성 선수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곤 한다. 당시 이승엽은 대구 넥센 히어로즈전 3회 3점 홈런을 터뜨렸는데, 삼성은 이를 발판삼아 넥센을 18-2로 꺾고 11연승을 내달렸다. 삼성은 그해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KS) 우승 컵을 모두 들어올리며 대망의 KS 4연패를 달성했다. 삼성 왕조의 최고점을 찍은 해였다. 이승엽은 25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이승엽은 “경

기 후 구단 사장님께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 이 회장님의 얘기를 직접 해주셨다. 의식을 잠시 찾으셨다는 것에 먼저 기뻐고, 또 내 홈런 소식에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에 감사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승엽은 “야구단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다. 감사했던 기억이 참 많다. 아쉽게도 개인적으로 뵈 적은 없다. 1999년 그릴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끝내 기회가 닿지 않아 밟질 못했다”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승엽이 이 회장을 직접 뵈던 기억은 삼성 유니폼이 아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였다. 이승엽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멀리 계산 모습을 봤다. 당시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와주셨는데, 그때 멀리서나마 인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이견희 여록

1987년 취임사 ‘삼성을 일류기업 성장’
2010년 경영 복귀 ‘지금이야 진짜 위기다’

25일 별세한 이견희 삼성 회장은 특유의 투박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삼성 경영의 초석이 될 만한 발언들을 남겼다. 고 이견희 회장의 주요 여록을 모아봤다.

-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1987년 12월 1일 취임사)
-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논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
-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
- ▲“과장에서 부장까지는 5시까지는 정리하고 모두 사무실을 나가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1993년 7·4제 실시를 지시하면서)
-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
-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2002년 6월 인재 전략 사장단 워크숍)
-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다”(2007년 1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
- ▲“삼성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2011년 1월 신년사)
- ▲“지금이야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리길 시간이 없다”(2010년 3월 경영복귀)
-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경영을 완성해야 한다”(2013년 10월 신경영 20주년 만찬)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부 고

삼성 이견희(李健熙) 회장께서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을 고려하여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 일동 드림